

가격 경쟁력 및 고품질 통해 업계 발전시켜야

제9대 한국포장협회 신임 회장



윤영욱

(사)한국포장협회 회장

(사)한국포장협회는 지난 2월26일 열린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주)선양 윤영욱 대표이사를 제9대 한국포장협회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협회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수석 부회장이자 연포장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윤영욱 신임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한국포장협회는 산적했던 업계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단합과 협회 이익 창출을 위해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욱 신임회장에게 취임 소감과 함께 포장업계에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몇년 간 지속되어 온 포장업계 불황의 터널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 포장업계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발전의 도태를 미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욱 회장은 포장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창출과 동남아 제품에 대응하는 등 국내 포장업계에 난립하고 있는 거센 파고를 해결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라운제과에서 부자재 구매 및 포장재 개발업무를 계기로, 포장의 장래성 하나만을 믿고 포장업계에 뛰어들은 윤영욱 회장은 1980년 한업인쇄를 창립, 현재의 (주)

선양으로 발전하기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흐름에 적극 대응하며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에 주력해 왔다.

“20여년 이상 포장업체를 이끌어 오고 있지만, 지난 해와 올해같은 어려움이 있었는 가 싶다”로 토로한 윤 회장은 “의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포장재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가 있어, 이 압박이 개선되지 않고, 포장에 대한 인식이 선진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발목을 붙잡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포장업체와 유저(user)가 수평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유저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감수해야하는 수직관계의 포장산업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화업체 역시 오래된 기계를 폐기하고 물량을 줄여 코스트와 비용을 줄이는 등 생산원이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운영욱 회장은 밀려드는 중국산 내지 동남아산 제품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사)한국포장협회는 연포장을 비롯한 포장기계, OPP/CPP/PET/NYLON 필름을 중심으로 잉크, 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포장관련 기업들이 공존공생하고 있다.

윤 회장은 포장업계 내부의 크고 작은 업체들이 상호 협조체제를 갖추고 상생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불법 스카우트를 방지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가 동남아산을 부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10~15% 가량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품질면에서 우월한 국내 포장산업계의 활로는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운영욱 회장은 (주)선양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 내수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의 저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환경이 개선되고 자연친화적인 포장재의 발전을 통해 포장방법이 개선될 때 다가오는 중국 포장산업의 발전속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전하는 윤 회장.

그는 동남아 국가의 국내 시장 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 자동화와 경량기 개발을 통한 원가와 인원 절감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을 거듭 강조했다.

유저와 포장업체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한 그는 제살각기식의 출혈경쟁과 수출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지양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내 포장업계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는 운영욱 회장, 업계 최대의 난고의 해를 맞은 지금, 윤 회장의 활약에 주목해 본다. 

박초혜 기자